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0>]한라산을 진정으로 사랑한 제주인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9>-한라산 박사 부종휴의 발자취를 찾아(5)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7.28. 00:00:00



산악안전대·제주산악회·한라산우회 발족

미답 등반로 개척 ... 4·3때도 한라산 올라

민족사의 비극인 4·3이 일어나던 1948 4월부터 한라산은 6년간 입산이 통제되었다가 1954년 9월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종휴, 김종철, 안흥찬은 통제기간에도 한라산을 드나들었다.

▲한라산 적설기 등반때의 부종휴.

“입산이 철저히 봉쇄됐는데도 부선생이 한라산에 오르려고 하자 관계당국의 허락을 받고 입산할 경우, 관음사 경비대 소속 경찰들이 결국 그의 신변보호를 위해 동행하기도 했다.”(안흥찬옹)

전 오현고 총동회장 현임종씨도 이때 3박4일간 부종휴와 처음 한라산에 같이 올랐다고 한다. “1953년 여름방학때였다. 일행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나는 밥짓는 일에서부터 설거지까지 혼자 도맡아 해야 했지만 처음 오르는 한라산 등산이어서 신바람이 났다....(관음사 등반로로) 백록담에 올라 영실로 하산했는데 4·3때 희생된 사람의 시신인듯한 빛바랜 유골이 여기저기 눈에 띄어 더욱더 일행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나의 한라산 첫 등산’ 중에서)

부산약대 생리학과에 근무할 적에는 지리산이 봉쇄될 때도 식물을 채집하러 지리산을 누비고 다녔던 일화가 전해진다.

1956년에 이르러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의 학생들이 교사의 인솔로 등반이 시작되었다. 인솔자는 신성여고 교사 부종휴를 비롯 김종철, 안흥찬, 이기형, 고영일, 김현우씨 등이었다. 그 이후 도내 모든 학교의 등반이 연례행사처럼 됐다.

산악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1961년부터였다. 이 해 5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적십자사 제주지사 소속 산악안전대가 발족했으며 초대 회장에 김종철이 선임되고 부종휴, 안흥찬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제주도 산악운동은 제주적십자 산악안전대의 창립으로 비로소 태동하기 시작한다.

한라산 입산 해제와 더불어 연중 한라산 등반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조난사고가 빈번하자 도내 몇몇 산악인들 가운데 한라산 조난 구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산악안전대 창립을 주도한 부종휴와 '오름나그네' 김종철의 관계는 매우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생을 산과 더불어 살았던 김종철(1927년생)은 부종휴(1926년생)와 한살 터울로 서로에게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었다. 이 두사람을 평생 스승처럼 대하며 따라다녔던 서재철씨의 기억이다. "오랜 기간 두 분과 곁에서 지냈다. 한라산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분들이며 산에 오를때면 두 분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잠을 청하곤 했었다. 서로의 호칭도 '선생'으로 부를만큼 깎듯했었다."

김종철은 말년 암과 투병하던 와중 수술도 포기한 채 '오름나그네' 원고 정리에 몰두하다 책이 출판된지 20일만인 95년 2월 9일 68세를 일기로 끝내 생을 마감했다.

제주에서 산악회가 처음 조직된 것은 1964년 7월 21일이었다. 올해 2004년이 제주산악회 창립 40돌이 되는 해이다. 제주산악회는 초대 회장에 만농 홍정표선생이 추대되고 부회장에 부종휴, 간사에 안흥찬, 김현우씨를 선출함으로써 산악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한라산 등산로는 거의 대부분 이들에 의해 개척된다.

부종휴 주도로 한라산우회가 태동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67년. 초대회장에 부종휴가 선임되었으며 산하에 학술분과를 두어 식물조사와 동굴답사가 본격화되는 전기를 맞이했다. 빌레못굴, 수산굴, 미악 수직굴 등에 대한 답사와 발굴은 부종휴와 한라산우회 회원들의 값진 희생의 결과였다.

60년대와 70년대는 한라산 등반코스를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시기였다.

한라산우회를 이끌었던 부종휴는 등반로 개척에 앞장선다. 한라산정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견한 흰진달래(1968년 5월)는 한라산 동부 미개척 등반로를 개척하던 중 얻은 부산물이었다.

당시 한라산 등산로로는 ▷탐라계곡-용진각-왕관릉-정상 ▷횡단도로-성판악-정상 ▷서귀포-남성대-정상코스가 이용돼 왔다. 부종휴는 이외에 새로운 코스로 ▷물장울-속밭-흙붉은오름-왕관릉-정상 ▷1100도로-어승생-어리목-장구목-정상 ▷법호촌-횡단도로-돈내코-평귀-정상 등을 권장하고 임시안내판을 세웠다.

부종휴는 초여름의 한라산 정경을 유난히 좋아했다. 그가 가장 권했던 등산철이 5월중순부터 6월중순에 이르는 초여름이었다. 그는 "초여름의 한라산은 정말 매력적인 여인과도 같다"며 신록의 한라산에 매료됐었다.

부종휴는 '산악인은 대자연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산악인 선서를 실천한 산악인이기도 했다.

'한라산 박사, 부종휴'의 육신은 갔지만 그의 정신과 열정은 한라산 구석구석에 남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끝>

[못다한 이야기]음악·사진에도 조예

음악감상회·그룹단위 사진활동 등 주도

부종휴의 발자취를 쫓다보면 과연 그가 진정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를 곱씹어보게 한다. 한라산과 제주의 모든 것에 천착했지만 순수함과 낭만을 추구했던 또다른 면모를 느끼게 된다.

브람스와 베토벤을 좋아했으며 그 음악에 젖어들 수 있었던 제주시 '원', '소라'다방은 그의 지친 육신을 달래주었던 위안처였다. 브람스를 한국식으로 '부만수'라 부르며 돌이 '권당'이라고 좋아했다. 그가 즐겨다니던 단골 다방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음악감상회가 열렸다. 일종의 미니 클래식콘서트인 셈이다. 음악감상회의 총지휘자는 부종휴였다.

부씨의 음악사랑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6년 그의 첫 부임지인 김녕초등학교 교사 시절 우리의 가곡집을 발굴해 직접 음악교재를 만들어 교육자료로 삼았다. 그의 제자 김두전씨(71·제주시)는 "풍금 연주실력이 학생들의 눈을 땀 정도였다. 음악에 재능을 보인 학생을 보고는 선생님이 소장하던 바이올린을 선뜻 내어 주시기도 했다"고 한다.

산에 오르다 동행자가 지친 것 같으면 어느새 나무위에 올라 노래 부르고 춤까지 추며 피로를 잊게했을 정도로 낭만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부종휴는 제주지역 사진분야를 개척한 인물로도 재조명된다. 사진에 심취해 있었던 만농 흥정표선생에 이어 1959년 부종휴를 비롯해 김용수, 고영일, 김광추, 이경희, 이동성씨를 주축으로 '제주사우회'가 결성됨으로써 사진활동이 그룹단위로 본격화된다. 1964년에 제주사진예술동호인회, 3년 뒤인 1967년에는 제주카메라클럽이 창립됐다. 이 때 부종휴가 핵심 멤버로 참여한다. 제주지역 사진예술이 도약하는 전기를 맞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진작가 고길홍씨(61·제주시)는 "부종휴선생은 사진활동이 미미했던 1950년대부터 사진에도 심취했다. 많은 분야에 업적을 남겼지만 제주지역 사진예술의 개척자중 한 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종휴는 물욕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다.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는 말년에 일기에서 후두통을 자주 호소한다. 그가 떠나던 1980년 11월의 초겨울 어느날 새벽은 비까지 내려 을씨년스러웠다. 부종휴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54세의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실에 애석해하고, 제주에 큰 족적을 남긴 그를 여전히 흠대하는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해 울분을 토해낸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9살에 아버지를 잃은 성자씨(33). “몇년 전에야 아빠의 실체를 알게된 동생 지석(31)이는 안경테도 아빠가 끼시던 것처럼 두꺼운 뿔테로 바꿨어요. 저는 ‘부한라’이고 제 동생은 ‘부만장’입니다. 우리에게 아빠는 그런 분입니다.”

그의 호 ‘한산(漢山)’은 ‘한라산(漢拏山)’에서 따온 것이다. 평생을 한라산에 파묻혀 지낸 이가 부종휴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인’이 아니라 제주의 가치를 발굴하고 진정으로 사랑한 ‘제주인’이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